

고지도를 통해서 본 봉화의 역사지리*

Historical Geography in Old Maps of BongHwa-Hyun

김기혁(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khkim@pusan.ac.kr)

정암(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ahmjung@hanmail.net)

최근 고지도가 지역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지방단위로 고지도가 정리되어 연구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봉화현의 군현지도를 고찰하는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 지도책으로 된 봉화현의 12종 군현지도를 대상으로 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수록 지명을 대축척 전국지도(〈대동여지도〉)와 비교하였다. 또한 〈동여도〉에서 〈대동여지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지명을 분석하고, 이들 지도에 수록된 지명을 1:50,000 지형도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여 지명의 연속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지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지는 산줄기로 표현된 것과 독립된 봉우리로 표현된 것으로 나누어진다. 방위는 간지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지도로 대별된다. 읍성의 표현에서는 읍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지도와 기호를 사용한 것으로 분류되며, 후자는 원형으로 나타낸 지도와 사각형으로 나타낸 지도로 다시 나누어진다. 이상의 지도표현요소와 방안·방위를 지표로 분류한 결과 세 유형이 확인되었다. 세 유형은 ① 〈해동지도〉유형 ② 〈(비변사인)영남지도〉유형 ③ 〈조선지도〉유형으로 명명되었다. 그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해동지도〉유형 : 방위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점은 모두 일방으로 통일되어 있다. 산지는 산줄기로 묘사되어 있으며, 하천은 산지와 대응관계가 뚜렷하다. 그 결과 산천은 모식적 인상이 강하게 느껴진다. 지역의 구도는 소백산지에서 분기한 문수산 → 광대산 → 금륜봉 → 풍락산을 중심으로 북쪽의 상동면과 남쪽의 현내면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읍치는 화면의 가운데 배열하면서도 그 모양과 구성을 돋보이게 묘사하고 있으며, 객사·아사·향청·향교 등의 읍치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비변사인)영남지도〉유형 : 방위는 간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시점은 모두 일방으로 통일되어 있다. 산지는 고립된 봉우리로 묘사되어 있다. 때문에 산줄기의 방향을 식별하기 어렵다. 치소는 사각형 속에 '읍치'라고 적어서 그 위치만 나타내져 있다. 그러나 도로는 이웃고을에 이르는 과정, 현내의 방면이나 기능체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봉수에는 봉수망이 표시되어 있어서 식별이 용이하다.

③ 〈조선지도〉유형 : 이 지도는 20리 방안지도이며, 따라서 지도의 전체적 윤곽이 현대지도에 가장 가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KRF-2003-072-1027)

깝다. 방위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일방시점으로 되어 있다. 산지는 산줄기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천과의 대응관계는 확연하지 않은 편이다. 치소는 속이 짝 찬 홍색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홍선의 도로로는 표시가 간결하지만 순흥과 영천, 현내의 史庫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뚜렷하다.

고지도에 수록된 지명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연·행정·군사·교통·경제·문화지명으로 대분류하였다. 그것을 다시 17개의 구체적인 지명으로 소분류하였다. 기재된 지명 수는 <대동여지도>가 36개로 가장 많으며(기호로 표시된 것도 지명에 포함시켰음), <해동지도>에 35개, <(비변사인)영남지도>에 31개, <조선지도>에 25개가 기재되어 있다.

수록된 지명의 유형별 빈도를 보면, 자연지명은 <대동여지도>(47.2%)에서 가장 높은 구성비율을 나타냈으며, <조선지도>(44.0%), <(비변사인)영남지도>(38.7%), <해동지도>(31.4%)에서도 공통적으로 구성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서 행정지명은 <(비변사인)영남지도>(25.8%)와 <해동지도>(25.7%)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문화지명도 <(비변사인)영남지도>(32.2%)와 <해동지도>(25.7%)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나머지 지명들은 특별히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도간에 차별적인 패턴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군현지도와 전국지도 사이에서의 뚜렷한 상관은 발견할 수 없었다. 지명의 소항목에서 4개지도에 공통으로 표기된 자연지명은 4개가 있는데, 태백산을 축으로 하여 문수산 → 금륜봉(鎭山) → 태자산으로 연결된 2차산지가 그것들이다. 이들 산줄기는 봉화 史庫가 있는 상동면과 邑治가 있는 현내면을 나누는 기준선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 밖에 4개지도에 공통하는 지명은 史庫와 그것을 소재하고 있던 覺華寺이다.

<동여도>는 <대동여지도>의 저본이었다. 그런데 <대동여지도>에는 판각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저본의 지명을 줄여서 제작하였다. 생략된 지명은 지도제작자의 지명에 대한 인식을 해석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동여도>에는 모두 68개의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 <대동여지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37.0%에 해당하는 25개 지명이 생략되었다. 생략된 지명은 산지(3개), 하천(2개), 호소(2개), 지형(1개), 방면(12개), 봉산(1개), 거리(1개), 사찰(2개) 등이었다. 가장 특이한 것은 방면지명을 많이 생략한 점이다. 이에 비해서 고현, 봉수, 창고, 고개, 역원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이들 지명이 갖는 높은 의미와도 관련되지만, 기호로 표기할 수 있었던 것도 작용하였다고 사료된다.

옛 지명이 현대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여도>의 지명을 1:50,000 지형도에서 확인하였다. 그 결과 23.5%에 해당하는 16개 지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것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옛 지명에 아무런 변화 없이 존속하는 유형이다. 여기에는 태백산, 문수산, 태자산, 청량산, 소천면, 춘양면, 각화사가 해당한다. 둘째는 지명의 음은 같으나 한자가 달라진 유형이다. 여기에는 勿也面(→ 物野面), 梧鹿面(→ 梧麓里)이 해당된다. 셋째는 지명 자체가 다른 이름으로 바뀐 유형이다. 여기에는 穿川(→ 낙동강), 買吐川(→ 낙동강), 小川(→ 소시천), 小川(→ 乃城川), 才山川(→ 東面川), 道美川(→ 雲谷川)이 해당한다. 넷째는 지명이 다른 기능체에 확대되어 접두사로 쓰이는 유형이다. 여기에는 재산면(재산초등학교, 재산중학교), 물야면(물야초등학교, 물야중학교), 소천면(소천초등학교, 소천중학교), 춘양면(춘양중학교)이 해당한다.